

‘살인적 물가’ 올해 가장 비싼 설 보낸다

설 1주 앞두고 성수품 5개 품목 광주 전통시장 소매가 비교
코로나·한파·AI 등 연이은 악재...1996년 이후 첫 10만원 돌파
전년비 사과 85%·양파 94.4%·대파 200% 상승 등 사상 최고가

지난해부터 이어진 기상악재가 일으킨 농산물 수급난이 ‘살인적 물가’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설 주요 성수품 가격은 통계가 작성된 지난 1996년 이래 25년 만에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일보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유통정보(KAMIS)에 공시된 지난 5일 기준 광주 양동시장에서 거래된 성수품 5개 품목을 집계한 가격은 10만3630원으로, 1년 전(5만8000원)보다 1.7배(78.7%) 상승했다.
비교 대상이 된 농산물은 사과 10개(3만7000원), 배 10개(5만원), 양파 1kg(3500원), 대파 1kg(6000원), 달걀 1판(특란 30개·7130원) 등 5개 품목이었다.
지난해 설을 일주일 앞둔 1월17일 가격과 비교해 보니 사과 가격은 무려 85%(1만7000원) 뛰었고, 배는 66.7%(2만원), 양파 94.4%(1700원), 대파 200%(4000원), 달걀 69.8%(2930원) 급등했다.
올해 설을 일주일 앞둔 이들 5개 품목 가격은 농

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역별 농산물 소매가를 발표한 지난 1996년 이래 가장 비싸다.
지난 2017년 ‘달걀 파동’을 겪은 달걀을 제외하고 사과, 배, 양파, 대파 가격 모두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봄철 냉해와 여름철 긴 장마와 태풍 등 기상악화로 인한 작황부진을 겪은 사과는 25년 전보다 가격이 4.9배(386.8%), 20년 전보다 73.3%, 10년 전보다 23.3% 뛰었다.
지난 1996년 10개(후지)에 7600원이었던 사과 가격은, 2001년 1만5000원, 2011년 3만원 등으로 오르락내리락했다. 단 지난 2012년 사과 가격이 3만5000원까지 오르긴했지만 올해 설(3만7000원) 수준에는 못 미쳤다.
지난해 냉해 피해를 크게 입으며 저장량이 크게 줄어든 배 가격 역시 올 설에 가장 비싸다.
신고 품종 배 10개 가격은 올해 사상 처음으로 5만원이 됐다. 1개당 5000원을 주고 사야한다는 말이다.

■ 광주 전통시장 설 성수품 가격 추이							〈단위: 원〉
연도	설 1주 전	사과 10개	배 10개	양파 1kg	대파 1kg	특란30개	합계
1996	2월12일	7,600	19,000	750	1,500	3,000	31,850
...							
2001	1월17일	15,000	14,000	1,100	1,200	2,700	34,000
...							
2015	2월12일	27,000	20,000	1,000	1,500	4,980	54,480
2016	2월1일	20,000	25,000	2,200	3,500	5,000	55,700
2017	1월20일	20,000	28,000	2,200	3,000	9,000	62,200
2018	2월9일	20,000	25,000	3,000	5,000	5,330	58,330
2019	1월29일	27,000	40,000	1,500	2,500	4,000	75,000
2020	1월17일	20,000	30,000	1,800	2,000	4,200	58,000
2021	2월5일	37,000	50,000	3,500	6,000	7,130	103,630

※2011년까지는 대인시장, 이후는 양동시장 가격

〈자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996년 설을 일주일 앞두고 10개에 1만9000원 하던 배 가격은 2001년 1만4000원, 2011년 2만7000원 등으로 등락을 거듭했다. 1년 전에 비해 무려 66.7%(2만원) 오르고, 10년 전보다는 85.2%(2만3000원), 20년 전보다 133.3%(3만6000원) 상승했다. 25년 전인 1996년에 비해서는 2.6배(163.2%) 뚝 가격이다.
차려상 장을 보는 데는 과일보다 당장 급등한 주요 채소가격이 걱정이다.

대표적으로 가격 이 크게 오른 채소는 양파와 대파가 있다.
양파(햇양파 포함) 1kg 가격은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94.4%) 오른 3500원에 팔리고 있다. ‘금(金)파’로 통하는 대파 1kg 가격은 무려 3배(200%) 오른 6000원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창

른 물가 부담을 애그플레이션(agflation) 대신 에그플레이션(eggflation)으로 바꿔 부를 만큼 달걀 가격 상승은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최근 달걀값 상승 추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수도권 일부 대형마트는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흰 달걀을 유통하기 시작한 가운데 광주지역 대형마트 측은 “아직 ‘수급난’이라 부를 정도로 달걀이 부족한 건 아니다”며 “미국산 달걀 판매 계획은 당분간 없다”고 밝혔다.
정부와 협업체 ‘대한민국 농활(농산물 할인)갑시다’를 진행하고 있는 대형마트 물가도 견잡을 수 없이 오르고 있다.
지난 주말 광주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된 햇양파 1.8kg 가격은 5980원으로, 지난 달 9일 4280원보다 39.7%(1700원) 올랐다. 대파 1kg 가격도 한 달 전 3480원에서 4784원으로 37.5%(1304원) 상승했다. 취정오이 1개 값은 한 달 만에 990원에서 1495원으로 51.0%(505원) 올랐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측은 “대파는 잦은 한파와 흐린 날씨가 계속되다 갑자기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 등 일기불순에 따른 생육악화로 출하량이 감소했다”며 “취정오이 역시 최근 한파와 잦은 비로 인한 일조량 감소로 출하량이 줄어 두 품목 모두 당분간 가격 오름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 전남본부, 남악 소상공인 지원 ‘착한 소비 선결제’ 동참

단골 가게 지키기 자발적 참여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5일 무안군 삼향읍 남악로 소재 식당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전남도에서 추진 중인 ‘착한 소비 선(先)결제’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경제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해서 미리 결제하는 방식이다.
평소 자주 이용하는 단골 가게를 지키자는 취지로 먼저 결제하고 재방문을 약속하는 것이다.
전남농협은 관내 시군지부 및 농·축협 등 계열사 직원들도 지역공동체 상생발전 차원에서 동참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전파하기로 했다.
이날 캠페인을 함께한 안종팔 농협 전남노조위원장은 “전남농협 직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며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백희준 기자 bhj@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서홍·왼쪽 두번째) 임직원들이 5일 무안군 삼향읍 한 식당에서 미리 음식 값을 치르는 ‘착한 소비 선결제’에 동참하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농협 광주본부, 광주지검·경찰 농산물 직거래 장터

광주 농축산물 직거래 행사가 지난 3~4일 광주 지방검찰청과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열렸다.
이 기간 동안 광주지역 14개 농협과 광주축산물농협, 하나로유통 호남지사는 우수 지역 농축산물 제품을 시중가보다 최고 30%까지 저렴한 가격에 선

보였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과 각종 과일선물세트, 한우선물세트, 제수용품, 농협목우촌 제품 등이 매대를 채웠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주문에

약 형식으로 진행됐다. 어려움에 처한 농가를 돕기 위한 주문이 이어지면서 역대 최고 판매실적을 세우기도 했다.
농협 광주본부 관계자는 “북구에서 생산되는 딸기와 광산구 한과 선물세트 등 농업인생산업 제품들이 큰 인기를 끌었다”고 설명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국농어촌공사 간부진, 설날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

1430만원 농수축산물 구입해 전달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공사 간부진이 성금을 모은 1430만원으로 농수축산물을 구입해 취약계층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법정부적 나눔 운동인 ‘공직자 설날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사 임원과 부서장급 간부진이 모금에 참여했다.
이 캠페인은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구매범위가 한시적으로 상향됨에 따라, 공직자가 먼저 농수축산물 선물을 구입해 농어업인과 취약

계층을 돕는 나눔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공사는 지난 2일부터 임원 및 부서장급 간부진 143명이 모금한 금액으로 농수축산물을 구입했다. 마련된 농수축산물은 나주계산원과 이화영아원, 효정원 등 5개 사회복지시설에 전해졌다.
공사 직원들도 자율적으로 농수축산물로 지인과 천지들에게 설 명절 선물을 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기탁하는 자발적 나눔 운동을 계속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 부서에서 활용하는 각종 기념품들을 지역특산물과 농수산물 가공품 등으로 활용하며 농수특산물 소비를 촉진한다. /백희준 기자 bhj@

세 열 글

“지역 유망 농식품기업 발굴·자금지원 노력”

김권형 aT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우리의 농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으로 부임하는 김권형(56·사진) 신임 본부장은 업무를 시작하며 이 같이 포부를 밝혔다.
김 본부장은 경희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전남대학교 대학원에서 농업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지난 1991년 공사에 입사한 뒤 미국 부장, 전북지사장, 수급관리처장, 식량관리처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탁월한 기획력과 추진



력을 바탕으로 농산물 수급 관리 및 유통개선에 비중 있는 역할을 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본부장은 “농수산식품의 생산과 수매·비축의 최대 거점인 광주전남지역에서 중책을 맡아 책임감을 느낀다”며 “재임기간 동안 지역 유망 농식품기업의 발굴, 자금지원, 학교급식 등 농식품산업의 현안 사항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